

# 일제 강점기 충북 북부 지방의 기독교 보급과 영향

(The Growth and Influence of North Chung-buk Province Christianity in Japanese Rule)

전 순 동\*

---

I. 문제의 소재	1. 감리교의 전파
II. 서울에서 충북 북부지방에 이르는 세 갈래 길	2. 장로교의 전파
III. 진천 지방의 기독교 전파	3. 조선기독교의 확산
1. 진천지방의 성공회	VI. 제천·단양지방
2. 진천 애인병원의 설립과 활동	1. 제천지방
가. 로스선교사의 애인병원설립	가. 제천지방의 교회 설립
나. 로스의 의료선교 활동	나.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3. 진명학교의 설립운영	다. 동명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IV. 음성지방	2. 단양지방
V. 충주지방	VII. 결 론

---

## I. 문제의 소재

1900년, 충북 지방에 최초의 신앙 공동체인 신대교회가 창립된 이후, 청주,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진천, 음성, 보은, 옥천, 영동 등 충북의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각 지역에 들어간 기독교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충북의 근대화 및 민족운동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여 왔다. 교회 부설학교의 근대교육, 기독교 청년의 항일 민족운동, 교회 성도들의 농촌 계몽 운동, 금주·금연을 비롯한 사회 계몽 운동, 신사참배 반대 투쟁 등은 좋은 예이며, 지역사회의 반응도 그런 역학에 흡수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초창기 기독교 신앙은 사회개혁과 민족독립을 위한 동력이 되었고, 교회는 민족운동과 근대 사상의 거점이 되었다.

8·15 해방 전까지, 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북 남부 지방은 장로교회가, 충주·제천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방은 감리교가 각각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여 오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충북 북부지방은 감리교, 충북 남부지방은 장로교로 등식화시켜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충주지방에도 장로교 계통의 교회가 일찍 세워졌고, 청주와 보은 지방에도 일찍이 감리교가 전파되었으며, 진천 지방에는 성공회가 일찍 전파되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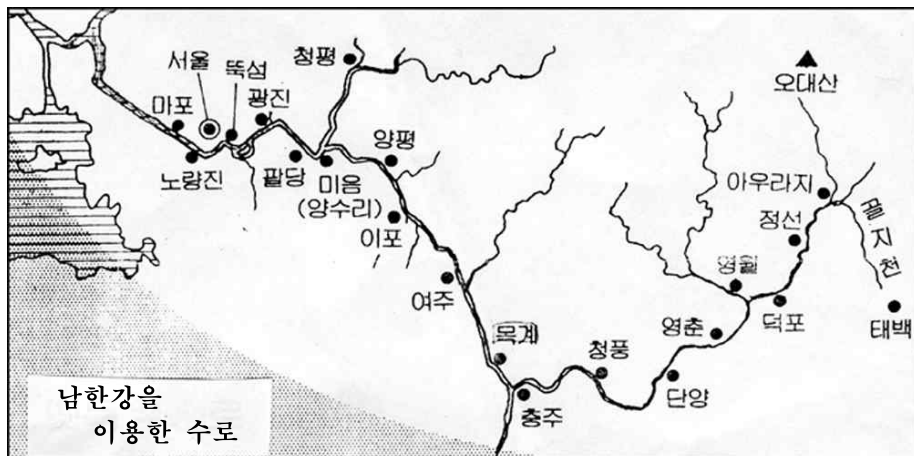
과 의료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충북 북부지방, 곧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지방의 기독교 수용 과정과 그곳 기독교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충북 북부지방의 기독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밝혀 보려 한다. 그 시기는 일제기로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 II. 서울에서 충북 북부 지방에 이르는 세 갈래 길

구한말이나 일제시기에 서울에서 충북 북부지방으로 내려오는 교통편은 크게 세 갈래 길이 있었다. 하나는 송파 나무를 건너 경기도 광주·이천·장호원을 거쳐 충청도 충주에 이르러 연풍을 거쳐 조령을 넘어 경상도 문경으로 가거나 또는 단양으로 해서 죽령을 넘어 경상도 영주로 가는 길, 또 다른 하나는 한강나무를 건너 경기도 판교·용인·죽산을 거쳐 충청도 진천·청주·보은·영동을 지나 추풍령을 넘어 경상도 김천으로 이어지는 길, 또 다른 하나는 남한강을 이용한 길로, 서울 마포-노량진-광나루-양수리-양평-이포-여주-목계-충주-청풍-단양-영춘-영월-정선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한강을 건너 육로를 이용한 두 개의 길과 남한강을 이용한 수로가 서울에서 충북에 이르는 주요 교통로였는데, 서울과 충북 지방을 오가는 선교사들과 전도인들은 이러한 육로와 수로를 이용하여 충북 북부 지방에 기독교를 전파하였다.

이 중 첫 번째 길은 미국 감리교파가 주로 이용하여 선교활동을 벌였으며, 중심 포교 지역은 경기도 이천과 충주를 중심으로 제천 단양 등 충북 북부지역이었다. 두 번째 길은 오늘날의 중부고속도로 노선이라 할 수 있는 데, 용인, 죽산을 거쳐 진천, 청주에 이르는 길로 미국 북장로회가 이용하여 선교활동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은 남한강 수로를 이용한 것으로, 목계와 충주는 남한강 수로를 이용한 교통의 요지였는데, 청풍, 단양, 강원도 영월로 이어지는 길이다.



충북 북부지방의 남한강을 이용한 수로

### Ⅲ. 진천 지방의 기독교 전파

#### 1) 진천 지방의 성공회

진천 지방은 일찍이 성공회가 들어와 충북 선교의 중심이 되었다. 제2대 주교인 터너(Arthur B. Turner, 端雅德)는 1905년에 서울정동교회(지금의 서울 주교좌성당) 주임사제였던 거니(W. N. Gurney, 金禹壹 신부<sup>1)</sup>)를 진천 지방에 보내어 전도하게 하였는데, 이로써 진천 지방에 성공회가 전래되었다. 이 때 한국인 전도사 양성교육에서 교육을 받은 임현조(야고보)가 거니 신부를 보좌하여 전도하였으며, 1907년에는 진천 교회를 창립하고 지방 70여 개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908년 1월 3일(양)에 60칸 성당을 축성하여 성 바오로 성당이라 하였다. 이 때의 상황이 성공회의 기관지인 『宗古聖教會月報』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금년(1908) 정월 초삼일에 주교 대인과 차 신부께서 왕립하시어 성당 축성례를 행할 때 믿는 형제 수백 명이 환영하고 성당 이름은 성 바오로 성당이라 하고 또한 수녀원과 소학교를 설립하니 학교가 아직 영성하나 소망이 있고 본 월 초순에 수녀 두 분이 내려와서 믿는 자매 수십 인을 모아서 성경진리를 교수하였나이다. 본향에 전도된 지 이제 3년에 소관 고을이 20개요 믿는 자가 수 천명에 영세자가 14인이고 망세자가 500명이나 됩니다.<sup>2)</sup>

이를 보면, 1908년 정월에 성 바오로 성당이 축성되었는데, 그 때는 당시 을사보호조약(1905)으로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일본의 통치가 노골화되어 가던 때였다. 그러한 때에 진천 성공회는 교회를 설립하고 학교를 개설하면서 선교와 교육을 추진하여 갔다. 그리고 1907년 말부터 거니가 진천교회 주임사제로 상주하면서 진천교회는 성장하였다. 진천교회는 1910년에 480명의 신자에 이를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보였으며<sup>3)</sup> 1923년 10월 16일에는 32칸의 규모인 진천교회에 성모마리아와 성요한 성당을 세웠다. 이리하여 진천교회를 중심으로 충청도 지역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나갔다.<sup>4)</sup>

성공회 초기, 진천은 인천, 강화, 서울과 함께 중요한 선교 거점지역이 되어 성공회가 크게 성하였다. 성공회 선교사들은 진천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교회와 기도소를 설립하였는데, 1908년 8월에는 광혜원에 유철준 등이 거금을 내어 12칸의 회당을 마련하였고, 무극과 청주에도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였다. 또한 1909년 4월, 진천 산정면 개미실에 12칸의 회당을 건축하였고, 충주 북성면 당평교회에도 회당을 건축하였다. 1910년에는

1) 그는 1876년 영국 출신으로, 1899년 옥스퍼드 대학원을 마치고 1901년 사제 서품을 받은 직후인 1903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부임하였다. 걷기가 불편하여 언제나 당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2) 『종고성교회월보』 제2호, 1908. 8, 임야고보의 진천 통신.

3) 이재정, 『대한 성공회 백년사』, 대한성공회출판부, 1990, p. 74.

4) 이재정, 『대한 성공회 백년사』, 대한성공회출판부, 1990, p. 73.

진천군 이월면의 송현성당을 성 베드로 성당이란 이름으로 축성하였다. 충주 월포와 여주에도 새로운 교당이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1909년 12월 진천교회에서 31명, 1909년 3월 무극교회에서 28명, 광혜원교회에서 26명, 1910년에는 동산말교회에서 53명이 견진 성사를 받는 등 신자의 수가 증대하고 있었다.<sup>5)</sup>

성공회는 진천지방을 선교의 기점으로 충북지방의 청주, 괴산, 음성, 충주 등의 지역 뿐만 아니라 충남의 목천, 경기도의 안성, 직산, 여주, 그리고 강원도 원주 지방의 선교도 시작했다. 특히 진천 주변의 교회들은 충북 선교 초기인 1907년~19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설립되고 신자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그 후 1920년대 3대 주교인 조마가(Mark Trollope, 趙馬架) 주교 때에 대 부흥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충북 지방에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났다. 1921년 청주 수동과 묵방리, 동산리에 교회가 설립되고 충주에도 감리교회였던 용원교회가 성공회로 가입하는 등 교세가 날로 번창하여 갔다. 충북의 성공회는 진천구역에 속하였는데, 진천읍교회, 송현교회, 실거울교회, 부연골교회, 청주교회, 묵방교회, 가곡교회, 동산리 교회, 음성읍교회, 용원교회, 무극교회, 갑산교회, 괴산 개오개교회, 여주의 도리교회, 월포교회, 골미교회 등이 모두 진천 교구의 관할 하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되지 못하고, 선교기금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거의 모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신자의 증가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 말기로 접어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상황에서, 충북 지방의 각 교회는 점점 신자를 잃어가, 성직자 없이 평신도나 전도사가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았다.

해방 후에 다시 돌아온 영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재건되었으나, 이미 선교의 불씨가 거의 꺼져 가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성공회는 초창기부터 벽촌을 선교 대상지로 삼았는데, 이는 영국 선교사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수도자적 선교 정책의 결과였다고 한다. 이렇게 벽촌 중심의 교회 분포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산업화, 도시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적응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교세가 크게 기울어 지금은 작은 교단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 시대의 진천성공회는 의료와 교육에 큰 업적을 남기었다.

## 2) 진천 애인병원(愛人病院)의 설립과 활동

### 가) 로스 선교사의 애인병원 설립

1908년에 교회당을 세운 진천성공회는 교육사업과 병행하여 병원을 건설하여 의료사업을 전개했다. 이미 제2대 주교인 터너 재임 시에 진천 지방의 의료 선교가 결정되었고, 이미 강화에서 의료선교사로 일해온 로스(A. F. Raws, 盧仁山) 선교사를 새로운 병원 책임자로 선임하였다. 그는 제물포(인천)의 성 누가병원 외과 의사인 와이어(Hugh

5) 이재정, 『대한 성공회 백년사』, 대한성공회출판부, 1990, pp. 73~74.

H. Weir)가 안식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약 1년 간 그를 대신해서 제물포에서 근무하다가 1909년 10월 말에 진천으로 왔다. 그는 병원시설도 없는 곳에서 현대의술에 무지하고 대체로 미신적인 행위에만 의존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며 의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로스 선교사는 1909년 11월에 '진천병원(애인병원)'을 설립하여 당시로서는 지방에서 접하기 어려운 서양의술을 서민층에 베풀었다. 병원의 시작은 강화에서 활동하던 로스 선교사 부부가 진천 지방에 상주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그는 1910년 초부터 학교 건물을 임시 병원으로 전용하여 진료에 들어갔으며, 그 해 하반기에 새로운 병원건축에 착수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거부감 없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물을 한옥으로 지으면서, 병원이름도 '애인병원(愛人病院, Hospital of the Love of Man)'이라고 명명했다. 그 병원은 교회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워졌는데, 1910년 말 애인병원의 의료 선교진은 다음과 같다.

의사 : 로스(노인산)

전도사 ; 임현조

여성선교담당 : 플로렌스 로스(로스 의사 부인) (1930년에 한국을 떠남)

여전도사 김테보라, 조한나

1911년에는 남아프리카(South Africa)의 한 여성 교우가 지원금을 보내 주어 그 돈으로 수술실을 새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새 병원건물은 1911년 10월에 가셔야 완공되었는데, 성당과 같은 크기의 한옥 건물이었다. 이로써 진천 애인병원은 서울과 제물포에 이어 새로운 의료선교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 나) 로스의 의료 선교 활동

로스는 병원을 개설한 후 열성으로 농촌 환자들을 돌보며 치료했다. 1911년 상반기에 만도 외래 초진환자 1,193명 및 재래환자 2,117명을 진료했고, 입원환자도 53명에 이르고 있었으며 그 결과 멀리 타도에 있는 사람도 진천에 병원이 있음을 알고 병원을 찾아왔다.<sup>6)</sup> 찾아오는 환자가 점차 늘어서 1912년에는 초진환자 3,814명, 재래환자 7,291명 등 11,105명을 진료했고, 입원환자가 143명, 수술환자가 94명으로 늘어났다.<sup>7)</sup> 1914년에는 여의사인 바로우(Anne Nancy Borrow, 송의사)<sup>8)</sup>가 진천 애인병원에 근무하여 더욱 활발하여졌다. 1916년에는 모두 12,164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이 중 새로운 환자가 2,742명,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144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37명은 왕진 치료를 했고, 수술환자도 44명이나 되었다.<sup>9)</sup>

6) 『대한성공회백년사』 대한성공회출판부, 1990. p. 170.

7) 'Ay-in Hospital', Morning Calm, Vol. 24, No. 136(1913. 4)

8) 바로우 의사는 1911년에 한국에 와서 1940년까지 진천, 해주 등지의 병원에서 일했으며 여주에 성 안나병원(Anne's Hospital)을 개설한 바 있다.

로스 의사는 단순한 의료 활동만이 아니고, 선교활동에도 힘을 썼다.

입원환자들과는 일상적인 대화와 함께 매일 기도로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수 있는 환자에게는 담 하나 사이에 있는 성당에 나가도록 하고, 또 읽을 줄 아는 환자에게는 부담 없고 읽기 쉬운 종교서적을 권고해 줍니다. 금방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몇 해가 걸릴지는 모릅니다. 우리 성당을 다니게 되지 않더라도, 집 가까이에 있는 개신 교회 가운데 어디에라도 가게 될 것입니다.<sup>10)</sup>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환자들을 육체적으로 치료해 주는 의사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심어 나가는 전도자였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의 성 니콜라 기숙사 출신으로 경성의전을 졸업한 오기택(吳基澤)이 1921년부터 청주에서 개업을 했다. 그리고 1924년, 선교부와 관련을 맺으면서 그의 병원 옆에 청주교회를 개척했다. 그런데 그의 병원은 입원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원 치료 환자나 왕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선교부는 그의 병원 확장 계획을 추진하면서, 진천의 애인병원과, 여주의 성 안나병원과의 연계 아래 의료선교활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진천병원을 개척하고 살려 온 로스 선교사가 1929년 9월, 만 62세에 애인병원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1897 내한하여 33년 동안 한국에서 몸담아 헌신하던 중 진천에서 23년간을 환자들과 함께 보내며 헌신 봉사했는데, 한 성도는 그를 떠나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그의 공적을 치하하고 있다.

오늘 33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조선에서 보내고 떠나시는 선생, 아니 선생의 일평생을 조선에서 보내고 떠나시는 그이 감회야 어떠하랴 ... 선생의 손에 다 썩은 다리나 팔을 자르고 치료받아 오늘까지 완인(完人 : 병이 완쾌된 사람)되어 있는 자가 얼마인가. 그의 약으로 난치병을 고치어 오늘까지 살아 활동하는 남녀로 유의수가 그 얼마나 되나... 돈이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환자에게 약을 주는 것은 물론이요, 밥과 옷까지 주며 병을 다스리고, 병이 나서 퇴원케 될 때에 노자가 없는 자에게 노자를 주며, 교군에 태워서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한번 두 번이 아니올시다.<sup>11)</sup>

라고 하여, 평소 로스 선교사가 정성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아 준 사실을 칭찬하고 있다.

로스 선교사는 영국으로 돌아가 페이버샴(Faversham)의 에텔버트(Ethelbert)가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집을 '진천'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한국을 그리워하며 지내었다

9) 『대한성공회백년사』 대한성공회출판부, 1990. p. 171.

10) Ae-in Hospital, *Morning Calm* Vol.26, No.150(1916.10) p. 102.

11) 전게서, 『대한성공회백년사』 p. 174.

고 한다.<sup>12)</sup>

로스 선교사가 영국으로 떠난 후, 진천 애인병원은 김용우(金龍雨), 홍순옥(洪淳玉) 등 한국인 의사에 의해 한동안 계속 운영되기는 하였으나 사양의 길을 걷다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1935년 3월 7일 잠시 문을 닫았다. 얼마 후 다시 개원하여 겨우 병원이 유지되었지만 일본이 종교적인 탄압을 하고 대동아공영을 내세우면서 “내선일체”의 정책을 펴 신학교가 문을 닫고 선교사가 퇴진함으로써 1941년 애인병원도 문을 닫고 말았다.<sup>13)</sup>

해방 후 의사 이한원이 1948년 1월 18일 잠시 문을 열었으나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끝내 12월 13일 완전히 폐원되고 말았다.

### 3) 신명학교 설립 운영

성공회는 병원 운영과 아울러 교회 부설학교를 세워 선교와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다. 1908년에 진천교회는 신명학교(현 삼수초등학교의 전신)을 세워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신앙과 신학문과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이 학교는 교회 신자 신필균(申必均)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세워졌는데, 초창기에 학생이 30명에 이르렀다.

신명학교는 단순히 학교교육만에 머물지 않고 더불어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Hostel)를 마련하여 이를 통한 공동체 교육과 종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주임사제가 거주하고 전도구의 중앙교회가 있는 도시의 경우, 공립보통학교에 재학 중인 시골 남녀 학생들을 위하여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하는 것이 성공회의 기본 정책이었는데, 진천에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숙사는 단순히 요즈음 우리가 경험하는 숙박이나 기숙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는 종교교육 훈련장이었던 것이다.

또한 진천 송현리교회(지금의 이월면 소재지)에서는 신범균, 신두희의 열성으로 ‘노동야학’을 개설했다. 충남 목천의 병천교회에서도 송사운, 오순삼, 박창열 등이 출연하여 신명학교를 설립했으며, 천안 부대리 교회에서도 신명학교를 설립했다.<sup>14)</sup> 신교육을 받으며 민족의식을 키워 온 성공회 학교의 출신들은 3.1운동 때 만세운동의 주역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성공회는 또한 여성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였다. 여성 교육은 로스 의사 부인인 플로렌스 로스, 김데보라, 조한나, 박마리아 등이 여전도사로서 활약하면서 여성들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교회에 모아 성경과 신학문을 가르쳤던 것이다. 학생의 연령층은 7세부터 18세까지였는데, 현숙한 여성을 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한문 지리 산수 습자 재봉 및 가사 등을 가르쳤다. 남녀의 평등에 근거하여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

12) ‘Letter from Bishop Trollope’ *Morning Calm* gVol. 60, No. 205(1930. 10).

13) 성공회가 경영하던 6개의 병원(서울 성 베드로 병원, 성 마태병원, 인천의 성 누가병원, 진천 애인병원, 여주 안나병원, 백천 제성병원)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선교사들이 강제 출국됨으로써 모두 폐쇄되었다.

14) 이재정, 대한 성공회 백년사 편찬위원회 편, 『대한 성공회 백년사』 (1890~1990), 대한성공회 출판부, 1990. p. 83~84.

정에서 원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통교육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교육은 단순히 여학생 교육의 목적 외에 여성 지도자 양성 및 훈련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진천교회는 학교와 병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를 구입하여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에서는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등보통학교나 법과 전문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 입학자를 위한 기숙사를 주임사제의 지도하에 운영하면서 가능한 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을 성직자로 유도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의 기숙사는 단순한 기숙사가 아니라 서양의 학료(College)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우수한 인재들에게 공동생활과 교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래의 성직자나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경성 남자 기숙사는 1914년부터 운영되었는데, 경비는 각 전도구에서 부담하였다. 기숙사 입사 대상자는 각 지역 교회 출신 가운데 서울의 고등보통학교(현재의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입학자로 한정하였다. 진천 출신의 학생으로 서울의 기숙사에 머물면서 공부한 학생으로는 초기에 오기택(경성의전)이 있고, 1918년 새로 건축한 성 니콜라 기숙사에 13명이 모두 경성고보(현 경기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가운데 홍순복, 조영원, 김현대, 조수학 등 4명이 진천교회 출신이었으며 그 중 김현대는 후에 성직자가 되었다.<sup>15)</sup>

#### IV. 음성 지방

음성 지방은 경기도 장호원(음죽)교회에 인접한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에서부터 신자들이 생겨났다. 당시 경기도의 장호원교회에 음죽군의 중심지인 죽골을 위시하여 죽산, 오방리, 우무실, 선가, 원당, 상평, 영산 등 여러 마을에서 신자들이 모여들었다. 이 중 주천리 가정집에서 예배 형식을 갖추어 모인 것이 오늘날 원당교회의 시작으로 그 시기는 1902년, 1907년, 1911년 여러 견해가 있어, 이는 더욱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원당교회의 초대교인들은 이웃하고 있는 장호원교회에 사경회가 열리면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신앙을 더욱 키워나갔다.

1907년경, 서울 연동교회(장로교)의 교인이었던 정원재·정성재·정현재 삼형제가 서울에서 낙향하여 이곳에 이사와 살게 되었다. 이들은 교인들과 합세하여 이승삼의 집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현재 교회의 위치에 초가 삼간의 원당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삼형제는 훗날, 모두 장로가 되어 열심히 봉사하였는데, 특히 정원재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 초기 교회부흥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이후 1931년, 좁은 예배당을 헐고 함석 지붕의 예배당을 신축하였고, 꾸준히 전도한 결과 주변 문촌교회, 용천교회,

15) 『朝鮮聖公會報』 No. 5(1918. 4. 25), p. 14.

생극교회 등 여러 교회의 개척·자립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1906년에는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에 원남교회, 음성읍 남천동에 음성교회 등이 세워지면서 음성지역에도 감리교가 확산되었다. 이 지역은 원당교회와 달리 공주에 주재한 서원보 선교사가 전도하여 교회가 서게 되었으며, 그 이듬해 1907년에는 초대 담임으로 이선녀 전도사가 파송되어 음성교회를 돌보기도 하였다. 이 지역은 공주지방 음성구역에 속하였는데, 1909년 이후부터는 수원 지방이 되었다.

한편 이 지역에 성공회도 일찍이 보급되었다. 충청도 지역의 성공회는 진천을 중심으로 전도를 활발히 하였는데, 1906년에 무극(無極)교회 설립되었다. 이후 제1회 교구의회가 조직된 1916년까지 음성지역에는 무극교회, 음성교회, 광혜원교회, 갑산리교회 등의 성공회의 교회가 세워졌다.

## V. 충주지방

### 1) 감리교의 전파

충북 지방의 경우 청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방은 장로교가, 충주, 제천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방은 주로 감리교가 성행했다. 북부 지방이 미 감리회의 선교지가 된 것은 1909년이였다. 당시 미 감리회는 장로교와 선교지 분할 협정을 맺어 이 지방을 이양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감리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1902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02년 감리회 연회록에

이미 우리는 목천과 진천 뿐만 아니라 청주와 충주에서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금년(1902년)에는 이 네 곳에서의 사업이 놀랍게 성장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믿기 시작한 덕들교회의 박해숙이 이곳에 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속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녁 달 동안 열두 개 마을에서 속회가 조직되었고, 470명의 새 신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처로 사용될 집문서 4개를 건네 받았습니다. 그 중 한 곳에는 65가정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40가정이 있습니다. 나는 1월 1일 이후 두 번 이곳을 방문하였는데, 특히 이 지역은 정치적 불안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상당한 목회적 관심이 필요한 지역입니다.<sup>16)</sup>

라고 기록되어 있다.

충주 지역의 복음 사역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이천 덕들교회 초대 교인인 박해숙 권

---

16) W.C. Swearer, "Suwon, Incheon and Kongchu Circuits" *Annual Mit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2. p.54

사였다. 덕들(德坪) 교회 출신 박해숙은 충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녀의 활동으로 넉 달 동안에 열두 마을에 신앙 공동체가 조직되고, 470여명의 새 신자를 얻었다. 지역은 일제의 조선침략에 항거하여 일어난 의병 운동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였음에도 신중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큰 효과를 얻었던 것이다.

충주 지역 일대 선교의 큰 틀은 서원보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다. 서원보는 충주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선교 사업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하는 한편 사업 계획을 구상했으며, 충주 인근 면 소재지에도 전도인을 배치했고, 서울 본부에도 그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1904년에는 감리교의 충청도 지역 책임자로 샤프(R. A. Sharp)와 그의 부인 사에리시(史愛理施 Sharp. A. J. Hammond)가 이 지역에 파송되었다. 이들은 1904년 12월, 조사 윤성렬과 함께 충주를 방문하여 성서를 보급했고, 1905년에는 서원보 선교사와 함께 사경회를 개최했다. 이 때 충주의 사경회에서 47명이 등록하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충주 지역 복음화의 터전이 마련된 셈이다.<sup>17)</sup> 특히 초기에 이천 덕들교회 출신의 한창섭 전도사, 이천 출신의 김제안 전도사, 이문현 전도사 등이 이 지역 구역장으로 파송되어 전도하였다. 이 지역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1909년 충주지역이 완전히 미 감리회 선교지로 결정되면서 더욱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초창기 충주·제천지방 복음 전도에 공을 세운 사람 중의 한 사람은 장춘명 목사이다. 그는 경기 여주군 가남면 맹골 출신으로, 이미 1899년에 덕들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처음 권서로서 여주 일대에 복음을 전했으며, 종교서적을 짚어지고 음성 북부, 충주, 제천 등에 나가 팔러 다니면서 전도했다. 이 일대는 평탄한 지역이 아니고 험산 준령을 넘어야 했고, 남한강 상류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건너야만 했다. 그런 중에도 1900년부터 1903년까지 여주 음죽(장호원)일대에서 권서로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나갔다. 1904년부터 1912년까지는 권서로서 여주구역 담임자로 연회의 파송을 받아, 음죽(장호원) 구역까지를 겸하여 시무하였다. 1912년 3월, 목사 안수를 받은 후부터 1915년까지 충주 구역을 담임하면서 수원 지방 동부 지역 순행목사를 겸임했다. 그 후 1915년에 충주제일교회에 부임했으며 1919년까지 충주 구역 담임자로 사역했다.<sup>18)</sup>

그리고 충주제일감리교에서는 교회 부설 유치원으로 1921년 3월에 세운 충주유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2) 장로교의 전파

충북 북부 지방은 1909년 북 장로교와 감리교 간의 선교지 분할 협정의 체결로 감리교의 선교구역이 되어 해방 전까지 감리교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초창기 장로교도 이곳에 들어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충북 북부 지역에 장로교 선교활동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17) 고성은, 충북 기독교 역사연구회 발표요지(2000, 11, 7) 『충청북도 개신교의 초기 역사(1897~1909)』 p. 28 “Study Classes in Chung Cheng Province” *The Korea Methodist*, 1905, March, p. 60; R. H. Sharp, “Chung Cheng Do Circuit”, *Official Minutes of the KMC*, 1905, p. 57.

18) 김동옥 『이천지방 감리교회사』 1994. pp.101~105. 『충주제일교회 연혁』

선교 초기에는 여러 선교사들이 각 지방을 순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남한 강을 따라 이곳에도 여러 교파 선교사의 발길이 닿았다. 어떤 선교사가 다녀갔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장로교 선교사가 순행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은 분명히 드러난다. 광무 원년(1897년) 『그리스도신문』 9월 5일자 “장로회 회의훈 말”과 동년 9월 15일 발행된 『조선 그리스도인회보』의 “장로회 회의훈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지나간 들 이십 오일브터 장로회에서 회의를 제중원 의스 어비슨씨 집에서 설시 하였는디 … 그 잇흔날 회의 훈 거슨 여러 목스들이 각각 그 전도훈 곳에 형편을 말슴 하논디 세례 받은이와 입교인의 수효와 연조금의 수효와 스랑하논 뜻슬 낫낫치 각각 설명 하논디 경기도에는 한성 니외 여러 곳과 수원 파쥬 고양 안산 죽산 양천이오 충청도에는 충주 등디며…<sup>19)</sup>(지나간 달 25일부터 장로회에서 회의를 제중원 의사 에비슨(魚丕信 Oliver R. Avison)<sup>20)</sup>씨 집에서 실시하였는데 … 그 이튼날 회의한 것은 여러 목사들이 각각 그 전도한 곳의 형편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세례 받은 사람과 입교인의 수효와 헌금의 액수와 사랑하논 뜻을 낫낫치 각각 설명하는데, 경기도에는 한성 내외의 여러 곳과 수원 파쥬 고양 안산 죽산 양천이었고, 충청도에는 충주 등지며…

1898년, 미 북 장로회 연례 보고서에서도 언더우드 목사의 충주 지역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현재로서 충주 지역은 어느 곳보다도 가장 놀라운 개방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 지역의 네 곳에서는 거의 모든 이방 우상들을 파괴했고 그곳 사람들은 성경공부와 기도를 위한 주일반을 조직했다. 그 지역의 한 지도적인 지방관은 예비신자이다.<sup>21)</sup>

위의 글에도 나타나듯이 충주 지역에도 장로교가 일찍이 들어가 그 줄기가 자라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그리스도신문』, “장로회 회의훈 말” 1897년 9월 2일; “장로회 회의훈 일”,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장로회 회의훈 일”, 1897년 9월 15일

20) 1892년 당시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일하던 언더우드(元杜尤)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을 방문, 한국의 선교 실정을 보고함으로써 의대생들에게 의료선교 사명감을 촉발시켰는데, 에비슨이 그 첫 지원자가 되었다. 언더우드는 뉴욕에 돌아가서 북 장로회 외국선교부에 감리교 교인이었던 에비슨을 선교사로 추천했고, 결국 그는 미 북 장로회 선교사 자격으로 그 해 4월에 출항, 6월에 부인과 3자녀를 데리고 함께 부산항에 도착했다. 그는 부산에서 어학을 익히다가 그 해 8월 상경하여 11월 1일부터 제중원 의사로 봉직하면서 고종황제의 시의가 되었다.

21) "Seoul Station", *The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1898, p. 156.

그 후 또 다른 북 장로회의 충주 지역 전도를 엿볼 수 있다. 1902년 장로교 모 선교사가 남한강 뱃길을 따라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충주군 엄정면 목계<sup>22)</sup> 장터까지 나귀를 타고 왔다가 장을 보러 온 유봉리 임치수를 만나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복음을 전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이 효시가 되어 이 지역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된 것이다. 1903년에 임치수는 같은 동리의 서하영 외에 몇 사람을 모아 자기 집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장로회 유봉교회 시작이다.<sup>23)</sup> 그 후 복음은 주변으로 확산되어 3, 4년이 지난 후에는 엄정, 목계, 문산, 구룡, 용포 등에도 교회가 설립되어 그 줄기가 자라게 되었다.

북 장로회의 충주 지역 선교는 특히 1905년 북 장로회의 김정현 조사가 금정(현재 성서동) 74번지에 충주읍교회를 설립함으로써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 충주읍교회를 설립한 김정현 조사는 북 장로회의 선교사 민노아 목사를 도와 조사로서 활동하다가 후에 목사가 되었다. 그는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출생으로, 어려서 양친을 여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1901년 향리의 작은 교회 영수인 김경조의 전도로 신자가 되었고, 그 이듬해 민노아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는 민노아 선교사 집에서 기거하면서 한때는 경신학교에서 수업하기도 했다. 청주에서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기도 했으나 성숙되기 시작한 그의 신앙은 교역과 봉사의 생활로 그를 이끌었다. 그리하여 그는 청주지역 최초의 선교사 민노아의 후원 아래 복음을 가지고 백마령을 넘어 충주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다.<sup>24)</sup>

충주에서 제일 오래된 충주제일교회 연혁을 보면, “1905년 충주읍 금정 74번지(현재 성서동 74) 초가 8칸에서 김정현 전도사가 3명의 교인으로 교회 개척 시작. 1907년 감리교 충주읍교회로 교회 개칭. 이문현 전도사 부임<sup>25)</sup>으로 되어 있다. 처음 장로교회로 출발한 충주읍교회는 1907년 감리교 충주읍교회로 교회명을 개칭하게 되었다. 그리고 1915년까지 하구암, 가금, 중앙, 대소원, 용원, 삼청, 한지리, 명오리, 수산리, 탄지리 등의 주변에 여러 지교회를 설립했다.

이 지역은 1909년 이후 감리교 선교구역이 되고, 충주읍교회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충주, 제천 지역의 교회는 모두 감리교에 편입되어 해방 전까지 이 지역에 감리교가 많이 전파되었다.

22) 당시 목계 장터는 남한강 뱃길을 따라 형성된 내륙 교통의 중심지로, 주변 산물이 이곳에 많이 모여 큰 시장이 열리던 곳이다.

23) 유봉교회 교회 연혁지. 유봉교회에서는 1993년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여 교인들과 이 교회 출신 유지들이 뜻을 모아 교회당 바로 앞에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비”를 세웠다. 전순동·최동준 『청주 YMCA 50년사』 pp. 19~20.

24) 김정현은 1910년 평양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졸업반까지 수학했으나, 신병으로 중단하고 말았다. 1927년 충북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11회 충청노회장을 역임했다. 1930년 서울로 이사하여 목회를 했으며 1933년부터 예화 설교집 『講臺寶庫』을 1집에서 8집까지 출판하였는데, 교계에서 인기가 있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5) 충주제일교회 연혁

### 3) 조선기독교의 확산

충주 주변의 산간 지역에 있는 엄정, 목계, 문산, 구룡, 용포 등의 교회는 1925년 ‘조선예수교’ 간판을 내걸고 감리교회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했다. 감리교 선교사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교회운영 뿐만 아니라 지나친 금연과 절제의 강조는 담배 주산지인 이 지역 교인들의 정서와 실정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거기에 충주라는 도시와 엄정, 산척 등의 농촌 교회와의 차별과 갈등도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지역 교회들은 감리교단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던 중 황해지역에서 ‘조선기독교회’를 창시한 김장호(金庄鎬) 목사<sup>26)</sup>와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 그의 영향을 받아 2년 후 1928년 3월 20일에 김장호 목사가 중심이 된 ‘조선기독교회’와 합병했다.<sup>27)</sup> 그리하여 엄정면, 금가면, 소태면, 동량면, 산척면, 양성면 일대에 조선기독교회가 널리 확산되었다. 이 지역의 교회는 오늘날 유봉교회, 목계교회, 송강교회 등이 그 전통을 이어 오고 있으며 현재 ‘대한 예수교 장로회(개혁·합동)’에 속하고 있다.

조선기독교회를 창시한 김장호(金庄鎬) 목사는 1881년 황해도 출신으로, 1914년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황해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봉산군 신원교회의 목사로 부임했다. 그는 목사가 되던 해 황해노회(노회장 김익두)의 서기로 발탁되는 등 실력을 크게 인정받았다. 그런데 그의 자유교회적 교회론과 자유주의적 성서 해석이 문제가 되어 황해노회에서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제명 처분했고, 1923년 총회에서도 이 처리를 접수했다.

그에 대한 장로교의 단죄는 두 가지 측면이었다.

하나는 그의 자유주의적 교회론이다. 의회적인 정체를 불복하고 평민적 민주정체를 주장했다. 일제는 이러한 동일성과 일체적 결속력을 무시하는 교회론을 펴는 김장호 세력을 후원하였는데, 그것은 한국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였다.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자유주의 성서해석이다, 홍해의 사건을 간조현상으로 설명하고, 오병이어의 표적은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이 많아져서 사람이 먹고 남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었는데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림으로 감동되어 자신들의 도시락을 각각 내놓아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열두 광주리였다고 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이처럼 그는 매사에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이적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판단했다.

그 후 김 목사는 1918년에 제명된 신원교회를 중심으로 “조선기독교회”를 창립하고 장로교회와 결별했다. 그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선인의 영혼은 조선인이 책임져야 한다.
- ② 선교사 파벌주의 전권사상을 지양하고 민족정신을 확립한다.

26) 김장호 목사와 조선기독교회에 대해서는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출판부, pp. 404~408.; 『조선 기독교회사』(조선기독교회 전도부) 1941. 참조.

27) 『朝鮮基督教會小史』 조선 기독교회 전도부, 1941. p. 113.

③ 과학이 뒷받침하는 종교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보면, 조선기독교회는 한국인에 의한 민족적 교회 수립에 초점을 맞추면서 반 선교사적 가치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반 선교사 입장은 1930년대 이후 일제의 반선교사 정책에 부합되면서 1940년대에는 김장호 목사가 일제로부터 “어대전기념장(御大典記念章)”을 수여받기까지 했다. 그 결과 조선기독교회는 말년에 민족교회 성격보다도 친일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28)</sup>

1909년에는 충주 지역이 완전한 감리교 선교 구역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 시기까지 세워진 충주와 음성읍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교회로는 충주 검단니교회, 신담교회, 충주군 청풍면 명오재 교회, 음성군 원당교회, 음성군 음성읍의 음성교회, 충주군 금가면 도천교회 등이다.

## VI. 제천 · 단양지방

### 1) 제천 지방

#### 가) 제천 지방의 교회 설립

제천 지방에서 가장 먼저 창립된 교회는 1904년에 세워진 원서교회(현 평원교회)이다. 충주에서 제천으로 들어가는 입구 제천 서편에 박달제가 있고, 그 고개를 넘으면 제천시 백운면이 있는데, 그곳에서 먼저 복음의 씨앗이 발아하여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성립되었다. 그곳은 당시에는 한국 교회 초창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제천지역은 원주의 영향을 받아 장로교 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장로교회로 출발하였다.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에 위치한 원서교회는 이영필 전도인이 초대 교역자로서 복음 전파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교회는 1909년 장·감 선교지 분할 협정에 의해 감리교단이 되었으며 오늘날의 평원교회이다. 일제 강점기 제천 지방은 감리교 선교구역이었기 때문에 감리교의 교회가 주를 이루었으나 선교지 분할 협정(1909) 이전에는 북 장로회 선교 지역이 되어 있었다.

1907년 8월에는 제천교회(현 제천제일교회)가 세워졌다. 제천교회 설립에는 한국 감리교 초대 목사이고, 서울 정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시무한 탁사 최병헌 목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천군 현좌면 신월리가 고향인 최병헌 목사는 정동교회 담임 목사 재직 당시 고향이기도 했던 제천에 전도함으로 제천 지역에 신자가 생겼으며 특히 이종수 · 구현철 · 이종화 · 장준상 · 안기연 · 김순문 · 홍우찬 · 황일성 · 이종태 · 이태영 등이 제천제일교회 설립 당시 초대 신자로 알려져 있다.<sup>29)</sup> 이 당시의 제천 지역이 북 장로교 관할 구역인 관계로 교회의 소속은 장로교에 속하였기 때문에,<sup>30)</sup> 초대 교역자인

28) 김남식 「반교권적 소종파운동」 『신학지남』 207호, 1985, 겨울, p.70.

29) 『제천제일교회80년사』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제천제일교회), 1987. p, 72

30) 상동.

김석현 전도사(1907~1909), 2대 교역자인 이문현 전도사(1909~1911) 등은 모두 장로교 계통의 교역자가 교회를 맡아 지도하였다. 1909년 장·감 선교지 분할 협정에 의해 충주·제천 지방은 감리교 구역이 된 이후 감리교의 교역자 김치익 전도사(1911~1912)가 담임하게 되었다. 1909년 이전, 이 지역에는 방하다리교회, 한두실교회 등이 있었고, 그 이후 청풍교회(1913) 등이 창립되었다.

충북의 감리교는 지역 선교가 활발해지면서 지방의 재편성이 일어났다. 충주 구역은 수원 지방으로 편입되었고, 1912년 제천 구역이 조직된 이후에는 제천 구역도 수원 지방 안에 들어오게 되어 수원 지방의 선교 영역이 확장되었다. 관할 영역이 확대된 수원 지방은 효과적인 복음사역을 위해 지역을 동·서·중 3분하여 관리하였는데, 수원지방 동쪽에 해당하는 충주와 제천은 한 지역이 되었으며, 1919년까지 장춘명 목사가 관리했다.<sup>31)</sup>

1913년에는 청풍교회가 설립되었다. 1913년 3월 15일 유인풍(김학남 권사 부친)의 가정에서 13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 청풍교회 신앙공동체의 시작이다. 이어 전밀라의 부친 전연득 장로가 최초의 담임자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 갔으며 1915년 3월에는 민병덕이 대지 120평을 헌납하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30년에 전밀라 전도사가 부임하여 1940년까지 시무하였다.

32)

1919년에 제천구역이 원주지방으로 편입되면서 여러 차례 선교 구역의 변화가 일어났다. 즉 수원 지방에 속했던 충주구역과 원주지방에 속했던 제천 구역이 새롭게 이천 지방이 조직됨에 따라 1920년부터 이천 지방으로 다시 편입되었다. 이듬해 곧 1921년에는 제천 구역이 원주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충주 구역은 그대로 이천 지방으로 남게 되었으며, 그 후 1924년 충주 구역이 원주 지방에 편입되어서야 비로소 두 구역이 한 지방에 속할 수 있게 되었다.

#### 나)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여름은 너무 덥기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 때이다. 학교는 방학을 하고, 사람들은 피서를 간다. 어린이들은 거리에 몰려다니면서, 착한 일을 배우기보다는 못된 습관을 들이기 쉽다. 이러한 때에 어린이들을 모아 집중적으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더욱이 여름은 각 학교의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중학생 이상 전문대학생들은 어린이들의 선생으로서 매일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때이기도 하다.

그런고로 충북의 여러 교회에도 여름이면 하기 아동 성경학교를 개설하여 집중적으로 어린이 구령사업을 실시했다. 제천에서는 1924년 이미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개최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는 기록은 없으나 1935년 8월 3일부터 14일까지

31) 장춘명 목사는 의병 출신으로 1899년 구연영(구춘경)과 함께 이천 덕들교회에서 학습세례를 받고, 1900년경에 여주 최초의 교회로 알려져 있는 맹골교회를 설립한 인물이다.

32) 리진호, 『제천개신교 전래와 양화교회 삼십년사』 2001, p. 82.

개최된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제12회였으니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24년' 이 된다.

[제천 하기학교]

제천읍교회 제12회 하기 아동성경학교는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최했다. 학생은 120명이요, 과정은 성경, 음악, 유희, 선문(鮮文;한글), 동화 등을 가르쳐 큰 성황을 이루었다.

- 직원 : 교장 조영숙, 서기 겸 회계 조석득
- 교사 : 차경창, 정운용, 이주옥, 조성로, 전밀라.<sup>33)</sup>

라는 기사가 그것이다.

제천읍교회 기사에는 하기 아동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과 교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그 때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보면 교사가 어린이들을 지도하는데, 단순히 성경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한글, 유희, 음악, 미술 등을 가르쳐 어린이의 인격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글 교습은 단순히 문맹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잃지 않고 지키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천읍교회에서는 1933년 8월 2일부터 12일까지에도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개최되었다.

[원주지방 제천읍교회] 주일학교 주최로 지난 8월 2일부터 12일까지 하기 아동 성경학교를 개최한 바, 수업자 89명이요 교수 과목은 성경, 동화, 창가, 수공이며, 열염(熱炎:끓는 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신 교사는 교장 유명순, 교사 임종락, 김인기, 엄기선, 김영동, 박노성, 황만성, 정진영, 이상필, 조영환, 최재현.<sup>34)</sup>

청풍교회에서도 1934년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실시했다.

충북 제천구역 청풍교회에서는 7월 23일부터 하기 아동 성경학교를 시작하여 8월 6일까지 마치고 수료식을 했는데, 과목은 성경, 예수의 역사, 아동성경 역사 문답, 인격조성, 한글, 음악, 수공이요, 교사는 한홍원, 이상인, 전세화, 한정희, 전연득 제씨요, 재적 학생은 89명이요, 평균 출석이 65명이었다고 하며, 학생들이 남선(南鮮)수해 구제금으로 거둔 것이 1원 45전이라 하더라.<sup>35)</sup>

33) 『기독신보』 1935. 10. 1.

34) 『감리회보』 1933. 10. 1.

35) 『감리회보』 1934. 9. 10.

청풍교회에서도 2주간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개최했는데, 이 때에 가르친 과목은 성경 역사, 한글, 음악, 수공 등이었으며 수혜 의연금까지 거두어 동포애를 발휘한 것을 볼 수 있다.<sup>36)</sup>

청풍교회에서는 1936년 9월에 남녀 엽잇청년회를 조직하였는데 회장은 경석규, 부회장겸 총무 전밀라, 서기 겸 회계 박선경 등이었다. 엽잇 청년회는 청년의 성숙한 신앙과 기독교 정신으로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한 감리교회의 청년회 조직인데, 이곳 청풍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청년조직이 조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동명 유치원 설립과 운영

제천 지방에서는 일찍이 교회부설 유치원이 개원되었다. 제천읍교회의 동명유치원이 그것이다. 그런데 유치원의 설립 연대는 기록에 따라 여러 이견이 보이고 있다. 『제천제일교회 80년사』에는 “유치원 설립 : 1931년 4월 1일 동명유치원(제천유치원)을 설립하다.”<sup>37)</sup>라 하여 1931년에 설립되었다고 하고, 『충청북도요람』 자료에는 “동명유치원 : 소재지 제천군 제천면, 창립연월 1928년 5월, 설립 慕塗儀<sup>38)</sup>”라 하여 1928년으로 기록하고 있다.<sup>39)</sup> 그리고 『기독신보』에는 다음과 같이 1925년 2월 6일로 기록이 되어 있다.

#### [제천 유치원 개원식]

충북 제천읍내 미 감리교회에서는 2월 6일에 유치원 개원식을 거행했는데, 정경호씨 사회 하에 주일학생의 창가와 천세영 목사의 권면과 내빈 축사 있는 후식을 폐했다더라.<sup>40)</sup>

라 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1925년 2월 5일, 정경호 씨 사회로 유치원 개원식이 처음 이루어졌으며, 그 때 담임 목사인 천세영 목사가 개원식에서 권면을 하여 앞으로의 발전을 기약했다.

이 때 사회를 본 정경호 씨는 동명 유치원 설립에 커다란 공을 세운 인물이다. 서울에 살다가 제천으로 이사와 장사를 하면서 교회에 봉사하던 그는 유치원 설립을 위해 200원이라는 거액을 헌납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유치원이 세워졌다. 그에 관한 미담이 『기독신보』에 다음과 같이 기사화 되어 있다.

#### [정경호씨 미거(美舉 : 훌륭하게 잘 한 일)]

36) 청풍교회는 당시 8월 5일 주일에 수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헌금했는데 헌금액이 4원 5전이였다. 이 때 헌금에 참여한 사람은 정양섭, 한홍원, 전연득, 안태순, 최마리아, 천정출, 이상인, 김주홍, 박절아 민동식이였다. 이 의연금을 8월 6일부로 동아일보사에 보내었다고 한다. 『감리회보』 1934. 9. 10자 참조.

37) 『제천제일교회 80년사』 p. 74.

38) 慕塗儀(모류의)는 원주 선교부의 모리스(慕理是, Charles D. Morris) 선교사이다.

39) 충청북도 편찬 『충청북도요람』 1930, p. 72.

40) 『기독신보』 1925. 2. 25.

정경호 씨는 경성부 다옥정에 본적을 두고 제천읍에 와서 상업을 하며 제천읍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중 유치원 설립에 2백 원의 거액을 출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잘 돕기를 결심함으로 일반인사는 씨의 사업의 열성을 탄복한다더라.<sup>41)</sup>

라고 그의 장한 일을 높이 칭송하고 있다. 그는 1년 전부터 천세영 목사와 함께 유치원 설립을 위하여 의 중심인물로 활동했으며, 이미 1924년 가을에 유치원 허가 및 개원 준비를 모두 갖추고 새해 들어 첫 원아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기사가 뒷받침한다.

[제천읍교회 유치원]

충북 제천읍교회는 설립한 지 이미 17년의 긴 세월을 지났으나 항상 연약한 상태에 있더니 재작년부터 천세영 목사가 시무한 이후로 교우간에 친밀한 정의(情誼)와 화평한 기상이 점점 더하여 가며 교회가 흥왕하여 가던 바, 금년에는 정경화 씨 주선으로 유치원까지 설립되어 교회는 매우 재미있게 진보한다더라<sup>42)</sup>

이상의 기사를 종합해 보면 1924년 가을까지 유치원 설립인가 등 행정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고, 그 이듬해 1925년 2월 6일에 유치원 문을 열고 원아를 맞아 처음으로 개원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sup>43)</sup>

1927년의 경우, 원아는 40명이었으며 원감, 보모 1인, 조수 1인이 교육을 담당했는데, 이 때 부형회에서 유지금을 마련하여 유치원 교육을 지원했고, 여자 엽위 청년회에서도 유치원을 많이 도와 주었다.<sup>44)</sup>

1930년의 경우, 동명유치원은 원장 방훈 목사와 보모 차사라(車士羅)가 40여명의 원아를 맡아 교육했다. 그 해 4월 29일, 학부형이 유치원을 후원하기 위해 후원회를 조직했는데, 특기할 일은 유치원 후원회에서 그 해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가극회를 열어 얻은 수익금을 모두 유치원에 헌납했다. 그 때에 매일 500여명이 관람하여 입장료가 220여원에 이르렀으며, 그 돈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보모 주택을 짓는데 보태었다고 한다.<sup>45)</sup>

1935년에는 유치원 원감으로 신흥규(申弘奎) 선생이 유치원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지 1년 만에 온 가족을 모두 교회로 인도할 정도로 열심이였으며 병환중에 있던 부친까지 회개시켜 세례 받게 했다.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기독교 예식을 따

41) 『기독신보』 1925. 2. 25.

42) 『기독신보』 1924. 11. 5.

43) 리진호 장로는 이 『기독신보』의 자료를 들어 1924년에 정경호 주선으로 유치원이 설립되었으며, 1925년 2월 6일의 기사는 설립 개원식이 아니라 입학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천개신교 전래와 양화교회 삼십년사』 p. 76.

44) 『기독신보』 1927. 11.16.

45) 리진호, 『제천 개신교 전래와 양화교회 삼십년사』 도서출판 우물, 2001. p. 76.

라 장례를 치른 후,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 풍금(4호 형) 1대(시가 125원)를 교회에 헌납하는 아름다운 본을 보인 그는, 유치원 원감으로서, 유치원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물질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어 제천 시내에서도 칭송이 자자했다.<sup>46)</sup>

그리고 동명유치원 자모회에서는 1937년 9월 21일부터 3일간 서울 베니아 상회 출장원 김범진을 강사로 초빙하여 요리강습회를 개최한 일이 있다.<sup>47)</sup> 요리사 김범진이 제천에 온 기회를 이용하여 부인들을 대상으로 강습회를 연 것이다. 회장 노순경, 조영숙 전도부인, 그리고 유치원 김봉혁 보모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약으로 50여명의 여성들이 수강했다.

그러나 1941년, 250여 호를 불태운 제천 시내 대 화재로 말미암아 교회당과 유치원이 완전히 소실되고 거기에 제2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유치원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해방 후, 1947년에 유치원이 다시 개원되었다. 그것이 오늘의 제천 유치원이다.

제천제일교회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동명유치원을 1947년 다시 개원하여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기독교 정신을 교육했다.

제천제일교회에서는 1953년 4월 10일, 6·25 전쟁으로 수업을 중단했던 동명유치원을 다시 개교했는데,<sup>48)</sup> 혼란기였지만 원아 60명이 등록했다. 그리고 1953년 7월 1일, 야간 중학교인 혜광여자고등공민학교(원장 박신오 목사)를 개교하여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었다.

또한 충주제일교회에서는 1953년 3월 3일부터 10일까지 변홍규 박사를 초빙하여 충북 지방 대 사경회를 개최하고, 전후 신앙의 자세를 더욱 굳세게 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충주유치원을 운영했는데, 이 유치원은 청주 상당유치원, 제천 동명유치원과 함께 충북 유치원 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 2) 단양 지방

단양 지방은 산간 벽지에 위치한 관계로 교통이 불편하여 외부와의 문화 소통이 뒤늦은 곳이었으나 교회를 통하여 서양의 근대 문물이 들어오게 되었다. 단양 지방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1910년 제천에서 전도사가 수시로 왕래하여 전도하면서 기독교가 들어왔다. 그 후 1913년 5월에 단양교회가 창립되었는데, 당시 김치경 전도사가 단양군 단양면 상방리 195번지에 와가 9평의 가옥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였다.<sup>49)</sup> 그리고 1915년에는 당시 담임 교역자로서는 김형재 목사가 수고했다.<sup>50)</sup>

단양교회는 창립 이후 1933년까지 20여년 간 9명의 교역자가 거쳐갈 갈 정도로 여러 교역자들이 이곳을 찾아 와 기독교 복음을 전파한 결과 1934년에는 21평 목조 건물의

46) 『감리회보』 1935. 7. 10.; 『제천제일교회 80년사』 p. 75.

47) 『감리회보』 1937. 10. 1.

48) 원장에는 최도명, 보모로서는 경창희 박정규 우순조 등이 수고했다.

49) 『단양교회 80년사』, 1993, p. 83.

50)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사』 p. 78~79.

예배당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장석현 전도사가 시무하면서 주택을 개조하여 신축한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의 기독교 탄압은 산간 벽지에 위치한 단양교회에도 미치지 않았다.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여 곤욕을 치렀고, 신사참배를 거부한다하여 핍박을 받았으며 교회 중까지도 빼앗기는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단양교회는 주변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일제의 압박 가운데에서도 주변에 기도처가 만들어지고 마침내 1940년에 대강면 장림리에 대강교회가 서고, 1941년에 고수리에 고수산성교회가 세워지는 등 여기 저기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다. 단양교회는 단양 지방 교회의 모체가 되었다.

한편 1929년 3월에는 매포감리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매포교회에 다니던 가평리의 신자들이 1949년 1월에는 가평리 공회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마침내 가평교회 공동체가 시작하였다. 학습교인과 세례교인들이 출현하여 교회의 기초를 다져갔으며, 주일 낮에는 공회당에서, 저녁에는 이두연 씨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 복음의 씨를 뿌리어 나갔다. 1950년 4월에는 초대 교역자로 오귀환 여전도사가 부임하여 신앙 지도를 하여 가평교회를 발전시켜 나갔다.<sup>51)</sup>

## VII. 결 론

이상 충북 북부 지방의 기독교 보급과 교육 및 의료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충북 북부 지방은 충청도가 갖는 지역적 보수성이나 또한 산간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복음이 전파되어 갔다. 그렇게 된 바탕은 ① 개인전도 추진, ② 신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전도대 조직, ③ 권서들과 함께 성서 보급 ④ 부흥·사경회 ⑤ 평신도 지도자 양성 등을 들 수 있다.<sup>52)</sup> 이와 같은 조직적이고 다양한 전도활동과 평신도 훈련에 힘써 이 지방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 신앙의 성숙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기독교가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은 복음사업과 교육사업을 활발히 전개한 데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여 왔는데, 충북 북부지역에도 그런 예를 찾을 수 있다.

교회 부설 유치원으로 맨 처음 설립된 것은 충주제일감리교에서 1921년 3월에 세운 충주유치원이다. 그리고 1925년 2월에는 제천제일교회에서 동명유치원을, 1929년에 4월에는 진천 성공회가 진천유치원을 개원하는 등 교회 부설 유치원이 곳곳에 세워졌다.<sup>53)</sup>

51) 『가평교회 40년사』, 1990, p. 37.

52) 동부연회역사편찬위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사』 1996, pp. 73~74.

53) 충주유치원과 동명유치원의 설립연도가 교회측의 기록과 기타 자료의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보이고 있다. 충주유치원의 설립연도가 교회측의 자료에는 “1922년 충주유치원 설립”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 편찬 『충청북도요람』 1930, p. 72. 에는 “충주유치원 : 소재지 충주군 충주면, 설립연월 大正 10년(1921) 3월, 설립자 趙潤如”로 되어 있다. 동명유치원의

그리고 각 교회에서는 하기 아동 성경학교를 운영하여 어린이의 인격을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었다. 성경학교라 하여 단순히 성경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한글, 유희, 음악, 미술 등을 가르침으로써 어린이의 전인적 인간 교육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맹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아가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일깨워주었던 것이다.

또한 로스 선교사가 1909년 11월에 세운 진천의 '애인병원'은 지방 서민들로 하여금 접하기 어려운 서양의술의 혜택을 받게 하였으며 근대 의식과 보건 위생 생활의 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하였다. 다만 해방 후에도 계속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

경우, 『제천제일교회 80년사』 p. 74에 “유치원 설립 1931년 4월 1일 동명유치원(제천유치원)을 설립하다”라 하여 교회측 자료에는 설립연도가 1931년으로 되어 있고, 상기의 『충청북도 요람』 72쪽에는 “동명유치원 : 소재지 제천군 제천면, 창립연월 1928년 5월, 설립慕 璽儀”로 되어 있으며, 『기독신보』 (1925.2. 25)에는 1925년 2월 6일로 되어 있는데, 『기독신보』의 기록을 따랐다.